

안기부, 'KAL 858기 폭파사건' 대선 활용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가 지난 1987년 북한 공작원 김현희 등에 의해 이뤄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의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여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북한의 테러 공작'으로 규정했던 사실이 공식 문서로 처음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사건 당시 안기부가 작성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복고음모 폭로 공작(무지개 공작)' 관련 문건을 통해 5일 밝혀졌다.

통일뉴스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이 자료는 당시 안기부가 작성한 A4 용지 5페이지 분량 가운데 2페이지 정도다. '무지개 공작' 사본에는 목적, 폭로 시기 및 방법, 국내 홍보 방향과 대북 홍보 방향 등이 각각 기록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공작) 목적으로 '11·29

정보 공개 청구 '무지개 공작' 문건서 확인 폭로 시기·방법, 국내 홍보 방향 상세 기록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 실종된 대한 항공 여객기 사건이 북한의 테러 공작임을 폭로, 복고 만행을 전 세계에 규탄하여 복고 위촉시키고 국민의 대북 경각심과 안보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가능한 대선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폭로 시기 및 방법으로는 '12·5경 외부 장관 명의의 조사진행사항 중간 발표, 국내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유도', '12·5 이후 일본, 바레인 및 아랍 수사 상황과 복고 반응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선택, 복고 반응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선

택, 12·16 이전 수사 중간 결과 발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서 작성 시기가 정부가 사고 경위나 지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데다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시점이었어서 안기부가 '테러 공작'으로 속단한 배경을 두고 또 다른 추측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병성)'는 '안기부 개입설'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당시 정부가 이 사건을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 했

는 사실은 이번 문건 공개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진 사실이며 문서에 담긴 내용들은 비교적 계획대로 실행됐다. 공교롭게도 당시 정부는 대선을 하루 앞둔 12월15일 김현희(마유미)의 신병을 바레인 측으로부터 넘겨 받았고, 이 과정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한편, 국정원은 당시 작성된 '무지개 공작' 문건에서 개인 실명 거론부분과 당시 안기부 조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일부분만을 이번에 공개했다.

'무지개 공작'은 지난해 8월 1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발전위)가 'KAL858기 폭파사건 조사결과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실체가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일 오후 전북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은 한승헌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사업 잘 돼 국가발전 기여했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 전북 새만금 현장 방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5일 전북 새만금 현장을 찾아 “직접 와보니 가슴이 벅차고 감개 무량하다. 이 사업이 잘돼 전북은 물론 국가발전 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희호 여사, 박지원 전 비서실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등 일행과 함께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고 김원주 지사와 입수진 한국농촌공사 사장의 안내로 약 40여 분간 현장을 둘러봤다.

부안군 변상면 새만금 전사관에 들어선 그는 전사관 내 회의실에서 현황을 보고받은 뒤 전사관 밖 전망대에 올라 20여 분간 방조제(33km)와 내외곽 시설을 두루 살펴봤다.

김 전 대통령은 “새만금사업 초기 야당 총재로서 정부에 절기차게 예산 반영을 요구했었다”면서 “그간 새만금이 여러 곡절 때문에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전북을 넘어 국가 경쟁력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새만금은 산업과 농업, 관광 등 다양도로 개발돼 중국과 일본 시장을 집중 공략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전체

하고 “이를 통해 전북도도 그동안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대통령은 미묘한 사안인 정치 및 FTA에 대해서는 일체 발언하지 않았다. 김 대통령은 이후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봤으며 6일에는 전북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특강을 한 후 상경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4일 서울 동교동 자택에서 박상천 신임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번에는 정 안되면 (범여권) 후보연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대선 전망과 관련, “한나라당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상당히 반성하는 것 같고 대북정책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단일정당이 최선이고, 안되면 단일후보로 가야 한다. 각 당의 원외위원장 문제도 있으니 해보라 안되면 단일후보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무현, 정몽준도 단일후보로 갔으니 (16대 대선에서) 이겼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북악산 40년만에 전면 개방 1968년 1·21 사태 이후 40년 동안 일본인 출입이 전면 통제됐던 북악산이 식목일인 5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반에 전면 개방됐다. 이번 전면 개방 구간은 창의문에서 북악산 정상상을 거쳐 와룡공원에 이르는 북악산 서늘성곽 4.3km 전 구간이다. /연합뉴스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범여권 세결집 본격화

범여권 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5일 국회 비준동의의 저지를 위한 세결집 및 여론확산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협상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하는 비상사회의는 오는 9일 국회에서 워킹숍을 개최해 협상 결과와 평가작업과 함께 향후 행동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의에는 우리당 23명, 민주노동당 9명, 민생정치모임 9명, 민주당 6명, 국민중심당 3명, 한나라당 2명, 통합진당모임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54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의는 앞으로 40명 내외의 전문자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사회세력 및 연성회, 피해계층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심의회 청문회 및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해나갈 방침이다.

사회의의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단식 11일째인 민생정치모임 전정배 의원은 앞으로 협상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자료를 제시하겠다는 이날 투자자국가중재제도(ISD)가 투자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식도중 실천했던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처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민생정치모임 최재천 의원은 국회FTA특위가 찬성 의원 위주로 구성했다는 이유로 특위를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정부 교육관련 첫 '당정협의회'

한나라당과 정부가 5일 국회에서 교육관련 첫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그간 당정협의회는 여당과 정부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으로 집권여당이 사라진데다 범여권의 분화로 원내 제1당마저 한나라당으로 넘어감에 따라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정부 간 당정협의회 자리 마련된 것.

첫 모임인 만큼 협의회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다소 어색하게 시작됐으며, 교육관련 현안이 폭넓게 거론됐다. 당 측은 특히 '3불

(Not 정책)'(분고사·기업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폐지를 요구했으나, 정부 측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협의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학생부의 실질적인 반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학에 자율권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분고사의 경우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이 제고된 이후에는 허용돼야 하고 기업입학제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임동욱기자 tuim@

신언상 통일차관 “대북 쌀 지원은 예정대로”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5일 방콕델타아시아(BDA) 문제로 북핵 '2·13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대북 쌀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양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남북관계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며 이 회담에서 쌀은 예정대로 줄 것”이라고 말했

다. 그는 “이는 정부 입장”이라며 “경협위에서 북한과 협의해 최종 합의해야겠지만 지원 방침은 서 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오는 1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의제와 관련,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의 틀과 함께 이산가족 문제를 푸는 문제를 중점 제기할 것”이라며 “그동안 북한의 태도에 비해 쉽지 않은 회담이 되겠으나 실질적

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신 차관은 “앞으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가급적이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이 역의가공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타결로 개성공단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남북경협 확대·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운동화 만큼 가볍고 발이 편한 경등산화 - 폴로K

원가 대 방출 1+1 파격찬스

2007년 신상품 판매율 1위 초경량 경등산화



일반형 남자등산화 + 일반형 여자등산화

※사이즈:남 250~280 여 230~255 색 상: 남(카키) 여(와인)

등산화 2켤레(일반형) 39,000원

29,800원

1켤레 구입시 19,800원

500분 한정판매

대박 찬스

완전 거품제거

1+1(2켤레) 고급형 구입시 118,000원 → 39,800원(※ 1켤레 구입시: 29,800원)

명품 케이-2 초경량 트레킹화 39,800원

어떤 레저에도 어울리는 '명품 초경량 트레킹화'

미끄럼 원천 봉쇄 한 K-2 트레킹화

디자인과 기능은 높이고 가격은 대폭 인하!

1켤레 구매시 - 39,800원

2켤레 구매시 - 59,800원

※사이즈: 250mm~280mm 색 상: 블랙, 블루

폴로K

미끄럼을 원천봉쇄한 파이프 소재로 밀착 PHYLON+RUBBER을 이용해 가볍고 내구성 및 충격흡수력이 뛰어나며 좌우대칭형으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노년 접지력 또한 뛰어납니다. 초극세사 메쉬소재와 파이론창사용 가벼움과 착용감을 최적으로 편안함과 앞뒤 좌우대칭이 접지력이 강화된 밀착을 사용하여 미끄럼방지 및 노년 접지력을 극대화 시켜 보행시 뒤꿈침방지를 위한 트랙보드를 삽입하였으며 관절방지와 기속순상을 보호하고 트레킹화의 수명 연장 및 뒤꿈침방지를 방지합니다.

※사이즈: 남 250~280 여 230~255 색 상: 남(브라운,카키) 여(와인)

여자등산화(단일색상)

프로 폴로케이 등산화는 신소재 고급등산화로 뛰어난 충격흡수와 장시간 산행에도 피로감을 덜 느끼는 새계절용 등산화. 무게가 가벼운 초경량 소재사용으로 실용성에 만족을 준다.

구매및상담 051-758-7228, 29,30

입금하실곳 ▶ 농협 121071-51-064311 (예금주: 조원숙)

※택배비 2,500원 소비자부담